

'전주형 교육' 뒷받침 교육기관 개소

시·전주교육지원청, 옛 옥성 건물 리모델링 구축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가져

청소년들이 스스로 숨겨진 재능과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형 교육을 뒷받침할 교육자치기관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은 16일 경원동 옛 옥성 건물을 리모델링해 구축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의욱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마을교육활동가, 청소년단체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인재육성재단 산하에 설치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전주지역 최초의 교육통합 중개지원조직이다. 지역사회와 학교, 시민사회단체,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통합적으로 전주교육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세운 풀뿌리 교육자치 기관이다.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은 16일 경원동 옛 옥성 건물을 리모델링해 구축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향후 '학교,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전주교육공동체' 구축을 비전으로 △소통과 협력의 창으로서의 '전주교육 플랫폼' △전주의 가치와 비전을 담아 학교와 마을을 잇는 '전주다움 교육' △자치와 참여로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아동·청소년들의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한 '전환교육' 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와 전주교육지원청, 야호교육통합

지원센터는 이날 개소식에 이어 올 상반기 중 전주의 교육 현장과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원클릭 시스템인 '전주교육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전주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마을교육활동가, 일반 시민들이 전주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센터는 지역사회기반 교육과

정을 선도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통해 마을 전체가 학습공원으로 전환되는 평생교육의 허브를 구축하고,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시민의 삶이 향상되는 행복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안성균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은 "교육으로 우리의 삶과 지역이 전환되는 살맛나는 교육도시, 생태적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전환도시 전주를 시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체방크파크 경기장(Deutsche Bank Park)에서 열린 '케이팝 플렉스'에 참가해 전주 관광 매력을 홍보했다.

독일서 '전주 관광' 매력 홍보

시, 프랑크푸르트 케이팝 플렉스서 홍보부스 운영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여행산업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유럽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체방크파크 경기장(Deutsche Bank Park)에서 열린 '케이팝 플렉스'에 참가해 전주 관광 매력을 홍보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케이팝 플렉스'에는 K-팝 그룹 엑스 카이·마마무·몬스타엑스 등이 출연하고, 전주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들과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CJ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한지 및 퀴즈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비지 전주' SNS 채널 홍보 등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또한 시는 유럽여행사와 독일 현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최근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선정된 배경과 전주 관광지원 등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이후 꼭 가봐야 할 도시로 전주를 홍보하기도 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유럽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지로서 전주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들과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CJ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시는 연인원 6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이틀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매력을 어필했다.

특히 시는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독일 MZ세대들을 위한 K-문화 콘

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한지 및 퀴즈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비지 전주' SNS 채널 홍보 등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또한 시는 유럽여행사와 독일 현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최근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선정된 배경과 전주 관광지원 등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이후 꼭 가봐야 할 도시로 전주를 홍보하기도 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유럽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지로서 전주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들과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CJ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인구정책 한눈에' 책자 발간

임신·출산 지원 등 5개 분야 160여개 사업 소개

전주시가 영유아부터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인구정책들을 모아 책자로 발간했다.

시는 단계별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전주시 인구정책 안내 책자, 사업'을 제작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전주 시 누리집(www.jonju.go.kr)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임신·출산 지원 △양육·교육 지원 △취업·주거·일자리 지원 △노후 지원 △기타 지원 등 5개 분야, 160여 개 사업이 소개됐다.

임신·출산 지원 분야의 경우 신규

사업인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을 비롯해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27개 사업이 담겨졌다.

양육·교육 지원 분야 사업으로는 올해 조세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다둥이 야호카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 등이 소개됐다. 또, △아동수당 지원 △아동급식 지원 △어린이 치과치료의 사업 등이 이 가운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72개 사업이 수록됐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업·주거·일자리 지원 분야 사업으로는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32개 사업이 소개됐다. 시민들의 노후생활을 든든하게 지지

김윤상 기자

해줄 노후 지원 분야 사업의 경우 △신년경 령형 일자리 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초연금 지급, 치매무료검진 등 28개 사업이 있다.

이외에도 시민 안전과 밀접하고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전주시 전동보장구 보험 △전주시민 안전보험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등 9개 기타 지원 사업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인구정책 안내 책자는 아동,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주시민에 실질적인 도움·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책자에 담긴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민들이 잘 활용해 모든 세대가 아울러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전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선거 치르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통합선대위' 출범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16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6.1 지방선거 본선 레이스를 향한 준비를 마쳤다.

출발식에서 우범기 후보는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시민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정엽 전 원주군수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고 유창희 전 의회부의장, 조지훈 전 전북경계통합선임위원장, 이종선 전 청와대행정관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공명선거대책본부장은 이만우 전 전북대병원 상임감사를 필두로 이진일(해성중고총동문회장), 김창중(전전주일보편집국장), 김원지(전전북도의원), 최형민(전주비전대 총학생회장)이 선거운동을 이끈다.

우범기 후보는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시민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선대위 고문은 강현욱 전 전북지사, 이상규 목사(사랑하는교회), 이상철 전 전주시장과 장세환, 최라도 전 국회의원이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김운덕, 양경숙, 김두관, 박용진, 이수진, 강병원 국회의원이 맡

었다.

우범기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 경선에 함께한 후보들이 원팀으로 포진, 6.1 지선 압승을 향한 '통합선대위'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선대위에는 또 전직 도지사, 국회의원, 종교계, 전주 지역 국회의원 등 중량급 인사들이 고문으로 포진해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민 생태교통 이용문화 확산 '출퇴근 챌린지'

7월 8일까지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위해 추진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생태교통 이용을 촉진시키는 전주시민 실천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은 16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8주 동안 수송 분야 온실가스를 줄이고 시민들의 생활 속 생태교통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생태교통 출퇴근 챌린지'를 진행한다.

생태교통 출퇴근 챌린지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교통수단인 생태교통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송 분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생태교통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자가용 대신 시

내버스와 자전거, 보행,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동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생태교통 출퇴근 챌린지에는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 기업 등 단체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 단체 등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개별문자로 발송된 출석부를 통해 8주 동안 본인의 생태교통 출퇴근을 인증하면 된다.

참여자도 직접 본인이 도전할 생태교통 출퇴근 목표를 선택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상품 및 상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총 상품(상품) 규모는 500만 원이다.

참가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063-281-2959)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간부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전주시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형배 부시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63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총장이 강사로 초청돼 장애와 차별을 주제로 장애인식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향후 인권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특히 2020년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이기도 한 김 사무총장은 이번 교육

을 통해 △장애의 정의와 이해 △장애 인식의 현주소 △장애가 갖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 등의 내용을 유쾌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병용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권행정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이번 인권교육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수고 인권도시 전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91명 검정고시 합격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지난 달 9일에 치러진 '제1차 초·중·고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92명의 학교 밖 청소년 중 91명(98.9%)이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시 꿈드림은 검정고시 대비반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에게 교재를 지원해 학업동기강화에 도움을 줬으며, 기초학습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1:1 멘토링과 인터넷 강의도 제공했다.

전주시 꿈드림은 향후 대학진학 및

사회진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대학입시 관련 정보 제공과 자격증 취득, 진로 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합격한 청소년들이 대견하다"면서 "검정고시 이후에도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진로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청소년 일자리지원센터 구축할 것"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청소년 교육·지원 등 공약

국민의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가 '청소년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 청소년들이 알바이트나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과 일자리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일을 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 이에 청소년을 위한 노무사를 배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형 스튜디오도 구축하겠다"며,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hrd-net의 경우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어 있고, 훈련과정마저도 전주의 경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가칭 '청소년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배정 및 관리, 직업교육 및 관리, 합당한 급여관리 및 청소년 보호활동, 직업상담 등의 역할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미래를 선도해 가는 전주미디어플랫폼 중심도시를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미래가 담길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